

부처님 오신 날 특집

53 선재들의 발원

백두산으로 소풍갈 수 있었으면...

1. 김민선(부천 석왕사 어린이 일요학교 부인국 6년)=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한가지의 물건을 쓰더라도,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이 배어 있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나, 부모님께 효도는 다하였나, 웃어른은 잘 공경하였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나를 항상 생각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2. 고희근(제주중앙국 4년)=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세계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 김은영(경기 범문유치원, 7세)=엄마 아빠가 항상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착한 온영이가 되게 해 주세요.

4. 김동현(전북 선원사 어린이법회, 남원중앙국 5년)=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저는 다

어린이들의 가슴에도 부처님이 오셨다. 풀망풀 망한 새색 불자들의 마을에 연꽃을 피우러 부처님이 오셨다. 어른들의 세상은 어두워도 천진동자·동녀들의 세상은 밝기만하다.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미래불교의 주인공이 될 53명의 선재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소박한 다짐과 소망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14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춤을 추며 자랑스런 불교 무용단원이 되었습니다.

9. 김도연(충북정사 이리다 어린이법회, 제주남국 6년)=나는 이 다음에 크면 공부도 잘하고 키도 커져서 좋은 대학에 가 신나는 농구를 해 국가대표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0. 손승아(경기 신라국 6년)=부처님! 우리 주위에 아직 도 가난한 이웃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얻고, 집없는 이들이 따뜻한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세요.

11. 김태은(경기 관음포교원, 장서국 5년)=우리 가족들이 항

마음 고운 어린이가 되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16. 박지남(충남 예산 신안국 2년)=부처님처럼 착하게 살고 싶어요.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칭소도 열심히 할래요.

17. 김은규(충북 청원 도원국 4년)=부처님도 맨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해서 사람들 도와 주셨잖아요. 나도 부처님이 될래요. 부처님이 고마워요.

18. 송진주(수원 포교당연꽃 어린이법회)=햇빛같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항상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밝은 마음 어린이가 부처님 오시는 길을 밝히는 연등이래 모인 어린이들은 부처님이 오시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듯 가슴이 설레인다.

=저는 지금까지 욕심이 많고 게을러서 부모님께는 효도를, 친구들에게는 믿음과 의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처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35. 김모란(충북대 부속국 4년)=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우리집에 비추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간에 친하게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36. 유원경(서울 북기초국 6년)=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 주세요. 그

=부처님! 성적이 날로 향상하고 친구들과 우애있게 지내게 해주세요. 또, 연꽃처럼 맑고 티없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44. 장승기(대구 반야월국 4년)=부처님! 저는 저희 반에서 반장직을 맡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 말을 좀 잘 따르도록 해주세요.

45. 전창훈(부산 남천국 1년)=게임기가 갖고 싶은데 부처님이 어머니께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46. 한영진(서울 리라국 6년)=저희 학교에는 부처님이 참 많아요. 부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세요.

47. 최경희(부산 양정국 5년)=부처님,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를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 할아버지는 아프지 않을 것

훌륭한 과학자 되고 싶어요  
엄마·아빠 서로 사랑했으면...

리고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노력이 따라야 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부처님 도와 주세요.

37. 박세연(대전 기약국 6년)=어머니와 하루에 30분 이상은 독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잘 지켰는데 요새는 책만 펴놓고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38. 신지아(전남 정흥국 1년)=부처님! 전 가끔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때를 써 엄마를 속상하게 해 드려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라시는대로 절에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39. 박지현(서울 미동국 6년)=항상 칠없는 저희들을 보살펴주시고 감사주시는 자비로운 신 부처님! 초과일에는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며 거리를 행진하도록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40. 전정현(강원 교동국 4년)=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반찬 무정도 안하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낼 것을 부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주세요.

41. 김문수(경남 축석국 4년)=부처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린이 5개도 잘 지키겠습니다.

42. 강은정(경남 기림국 4년)=열심히 공부도 하고 방청소도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쁠때나 슬플때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43. 권수연(서울 은석국 6년)

거예요. 보살펴 주세요.

48. 김동우(강원 초당국 4년)=부처님 저는요. 매우 일요일에 열리는 법회에 나가 스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제일 즐겁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49. 김나래(경남 평거국 5년)=앞으로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50. 정현주(광주남국 6년) 용화정사 어린이법회)=부처님!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되게 부처님이 좀 도와주세요.

51. 이은정(강원 강릉국 5년)=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세분 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부처님입니다. 또한 저의 바람은 부처님처럼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52. 천창식(부산 광남국 3년)=부처님, 전 너무 동등해서 걱정이예요. 살이 5kg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군것질이 하고 싶어도 꼭 참고 견디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3. 탁은경(경주 월성국 1년)=부처님! 경주를 찾는 관광객 여러분들이 제발 질서를 좀 잘 지키게 해 주세요. 어른들이 풍족도덕을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전쟁과 가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해서 부모님이 기뻐 하시길...

른 아이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스님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저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5. 김태정(경기 관음포교원, 내산국 6년)=새로운 학교에서도 적응 잘하게 해 주시고, 친구들과도 너그러우 부처님처럼 대하게 해 주시고 부모님이 나 어른들께 존대말을 항상 쓸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6. 엄은지(경기 관음포교원, 거학국 6년)=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따돌린다는지, 무서운 행동은 지혜로운 생각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공부 잘하고, 우리집이 언제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7. 원정현(금릉사 법연 어린이회, 복재주 김남국 6년)=절에 다닌 이후에는 항상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잘 배우고 실천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8. 허은영(제주 천진물어린이 무용단, 신제주국 6년)=엄마의 권유로 불교 무용단에 입단해

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2. 채이영(전북 군산 흥천사 반야어린이회, 경포국 6년)=부처님!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비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구와는 우정을 돈독히 하고 형제와는 사랑을 다하게 해 주세요.

13. 안희정(안양 한마음선원 어린이회, 삼성국 6년)=전 언제나 웃고 있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의 기뻐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14. 김선희(충남 천안 구성국 1년)=우리 엄마가 부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거예요.

15. 김하미(대전 대동국 5년)=초파일이 오면 대동전은 물론 절 마당에는 울긋불긋 연등이 아름답습니다. 연등처럼

그리고 나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19. 김경민(강릉 초당국 1년)=엄마, 아빠와 함께 관음사에 부처님 만나러 갈때가 가장 즐거워요. 부처님께 잘하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저도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이쁘게 잘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도와 주세요.

20. 정재우(대전 실문사어린이회)=법회 때마다 스님은 '부처님을 가장 잘 따르는 방법은 효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21. 배현정(대전 중앙국 6년)=나는 학용품을 조금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문방구로 달려가 또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용품을 아껴 쓰겠습니다.

22. 이동호(조계사어린이회 6년)=제가 스님이 된다면 설법을 잘하는 스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조계사 어린이회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23. 박태영(대전 흥도국 5년)=저는 부처님이 정말 좋아요. 동네의 친구들과 함께 법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4. 박정은(충남 당진 탑동국 6년)=부처님 탄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5. 김우미(울산 남북국 5년)=부처님 지금 지구 지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전쟁을 없애주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26. 최승기(경북 화원읍 화원국 6년)=부처님,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지도록 도와주세요. 통일이 되어 수많은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우리들은 백두산으로 소풍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27. 김기영(경주 황남국 6년)=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이 가난하고 약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28. 인치우(서울 은석국 6년)=저는 매년 찬불가대회에 나가 노래 부를 수 있어 즐거웠는데 올해는 번성기라서 참가를 못 해요. 그렇지만 교리퀴즈 대회 등 재미있고 신나는 게임에 많이 참석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자랑 같이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많이 참석해 자랑스런 포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29. 김성희(대구 봉덕국 6년)=요즘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처님이 나쁜 사람이 부처님께 의지해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30. 김현정(용화정사 어린이회 광주남국 4년)=나는 부처



목립기림관,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국석·성문사(聖輪寺), 시종 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기정호탈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솥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솥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법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솥기와는 사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이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솥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의 고색창연한 맛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들의 전통적 원형과 곡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한 맛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솥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용 기와 가공에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솥기와의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